

최원준

“절친이라도 자리싸움엔 양보 없어요”

류승현



오키나와 TIGERS 캠프를 가다

3루수 이범호 고질적 허벅지 부상 유격수 중심 내야 백업 경쟁 치열 내야 동반 출격 등 '주전의 꿈' 최 "수비 자신감...공격에 집중" 류 "개막전 선발 출전이 목표"

'절친' 최원준과 류승현에게 KIA 타이거즈의 미래를 묻는다.

KIA의 2019시즌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있다. 부상에 신음하는 마운드의 진용을 짜는 게 발등의 불이 됐지만, 팀의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하면 '야수진의 세대교체'도 중대한 과제다.

KIA는 지난 2017년 폭발적인 타선의 힘을 앞세워 우승의 영광을 누렸다. 올 시즌에도 KIA의 화력은 장점으로 꼽히지만 타선에 불을 붙였던 '우승 멤버'들의 나이가 쌓여가고 있다.

팀의 정신적 지주와 주장으로 선수단을 이끌어온 이범호와 김주찬이 내년이면 40대가 되고, '우승 멤버' 막내 안치홍도 올해로 30대에 접어들었다.

야수진의 노련함에 젊은 패기를 더해 볼 흐르듯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즌, 야수진 세대교체의 중심에 1997년생 동기 최원준과 류승현이 서 있다.

두 사람은 매서운 방망이로 일찍부터 기대를 받은 유망주다. 김기태 감독은 일본 요미우리와의 연습경기 때 최원준과 류승현을 상대 팀 하라 감독에게 인사를 시키며 원포인트 레슨을 부탁하기도 했었다.

팀 상황도 이들의 올 시즌에 힘을 실어준다. 주전 3루수 이범호가 고질적인 햄스트링 부상으로 캠프에서 하지했고, 유격수를 중심으로 한 내야 백업 경쟁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기회의 캠프'에서 류승현과 최원준은 내야에서 부지런히 테스트를 받으며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 나란히 3루수와 유격수로 동반 출격하기도 하는 등 두 사람은 함께 주전을 향한 꿈을 키워가고 있다.

류승현과 최원준은 또 다른 동기인 신병수와 챔피언스필드에서 '주 6일 훈련'을 하며 이번 캠프와



KIA 타이거즈의 최원준과 류승현이 야수진 세대교체의 중심 선수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일 일본 오키나와 나하셀룰러 구장에서 열린 요미우리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각각 유격수와 3루수로 출전한 최원준(오른쪽)과 류승현.

2019시즌을 준비했었다. 준비를 잘해서 온 만큼 캠프도 자신 있게 치르고 있다.

최원준은 "시합 때 결과가 안 좋는데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타격에 초점을 맞춰 남은 캠프를 보낼 생각이다"며 "캠프서 유격수를 많이 했다. 수비는 여유가 생겨서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비는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불안한 것은 없다. 여유가 생겼다"며 "(고등학교 때) 투수를 많이 했는데 투수로서 던지는 것과 야수로 던지는 것이 다르다. 프로 와서 4년을 하면서 야수로 던지는 걸 많이 느꼈다"고 덧붙였다.

수비는 물론 캠프를 치르고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여유가 더해졌다.

최원준은 "좌날 해보니까 심적으로 올해 캠프가 편해진 것 같다. 매년 잘하려고 하는데 올해 준비도 잘 됐고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며 "지금 부족한 거 잘 보완해서 시즌 시작할 때부터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발 빠른 게 장점이다. 1루에 많이 나가야 득점할 수 있으니까 출루에 신경 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류승현도 팀의 미래라는 기대감 속에서 예전과는 다른 캠프를 보내고 있다.

류승현은 "제대로 이렇게 캠프를 하는 것은 처음인데 일본 팀과 경기도 하고, 하라 감독님의 지도도 받았다. 많은 경험이 된 것 같다"며 "운동적으로 힘은 것은 거의 없다. 준비 잘했고, 시즌 준비도 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실전을 통해 확인한 문제점을 보완해 '개막전'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다.

류승현은 "일찍부터 경기를 시작했는데 힘든 것 보다는 좋다. 시합을 통해 부족한 것이 드러났다"며 "타격할 때 몸이 빠지는 게 있어서 잡아 놓고 치려고 한다. 시합 나가다 보면 더 느끼는 게 많이 있

을 것 같다. 수비 신경 많이 쓰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 수비는 편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부상 없이 친구들과 좋은 동료이자 경쟁자로 남은 캠프를 알차게 마무리하는 게 류승현의 또 다른 목표다.

류승현은 "올 시즌 욕심이 난다. 자리가 빈 곳이 생겼고, (친구들끼리) 경쟁도 해야 한다. 같이 개막전부터 시합 나가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다"며 "남은 연습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서 개막전에 스타팅으로 나가고 싶다"고 포부를 이야기했다.

/wool@kwangju.co.kr

김주형, 역전 스리런 '화려한 신고식'

한화와 연습경기 9-9 강우콜드 무승부...김기훈 2이닝 5실점

KIA 타이거즈가 국내 팀과의 첫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KIA가 지난 28일 일본 오키나와 고친다 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를 6회말 9-9 강우

콜드 무승부로 마무리했다.

지난 26일 대만 캠프에서 오키나와 캠프로 이동한 김주형이 역전 스리런을 날리며 화려한 신고식을 치렀지만, 팀의 연습경기 첫 승은 불발됐다.

KIA의 스프링캠프 연습경기 전적은 2무 5패가 됐다.

'루키' 김기훈이 선발로 나서 가능성과 속제를 동시에 보여줬다.

김기훈은 1회말 첫 타자 정근우의 3루수 땅볼을 시작으로 노시환과 호인을 각각 유격수 땅볼로 처리하면서 좋은 출발을 했다.

하지만 볼넷으로 시작한 2회 9명의 타자를 상대한 뒤에야 마운드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

선두타자 김태균을 볼넷으로 내보낸 김기훈이

이성열에게 우전안타를 맞았다. 하주석을 2루수 직선타, 정은원을 2루수 땅볼로 잡으며 투 아웃까지는 채웠지만 이후 긴 이닝이 펼쳐졌다.

김기훈은 최재훈에게 좌측 담장 넘어가는 스리런을 허용했고, 다시 이용규에게 볼넷을 내줬다. 2사 1루에서는 정근우의 한방이 나오면서 김기훈은 2이닝 4피안타(2피홈런) 2볼넷 1폭투 5실점을 기록했다.

김기훈은 1회 신인답지 않은 씩씩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앞선 등판에서도 이어졌던 볼넷이라는

문제점도 동시에 노출했다.

타석에서는 김주형에 눈금이 쏠렸다.

0-5로 뒤진 3회 1사 1-3루에서 우익수 플라이로 팀의 첫 득점을 만든 김주형은 6-7에서 맞은 6회 네 번째 타석에서는 역전 스리런을 날리며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이어진 6회말 수비에서 황인준이 밀어내기 볼넷 등으로 2실점을 하면서 경기는 9-9 무승부로 끝났다.

/wool@kwangju.co.kr

“목표는 승격” 광주 FC 근거 있는 자신감

3일 서울 이랜드와 K리그2 개막전...전력 보강·전훈 성과 높아

광주 FC의 승격 도전이 막을 올린다. 광주가 오는 3일 오후 3시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서울 이랜드와 2019 K리그2 1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새 시즌을 향한 광주의 시선은 위로 향해있다. 지난 시즌 '4강'을 이야기했던 광주는 '승격'을 목표로 2019시즌의 대장정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는 지난겨울 알찬 전력 보강과 강도 높은 전지훈련으로 승격으로 가는 길을 닦았다.

엄원상과 이희균 등 급고교 출신 특급 신인들로 새 피를 수혈한 광주는 정다환, 박정수, 이진형 등 베테랑 선수를 영입했다. 구단 처음으로 외국인 수비수(아술마토프)를 영입해 수비 전력에 무게감을 더했고, 개막을 앞두고는 수원 삼성에서 활약한 미드필더 김준형을 1년 임대로 불러들였다.

조주영과 홍준호 등 임대 자원들도 복귀하면서 탄탄한 전력을 갖췄다.

임민혁과 김정환, 여봉훈, 최준혁 등 기존 자원을

역시 건재하다. 어느 때보다 균형이 맞춰진 스쿼드를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술과 안정감 있는 경기 운영이 기대된다.

전지훈련 성과도 좋았다.

광양 1차 전지훈련에서 체력을 강화한 광주는 오키나와 2차 전지훈련을 통해 광주의 색을 확고히 했다. 박진섭 감독이 추구하는 기술과 끈긴한 축구가 몸에 익었고,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도 크지 않다.

선수들의 컨디션도 절정에 오른 만큼 개막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서울 이랜드전 승리는 1승 이상의 가치가 있다. 광주는 초반 4-5경기가 승격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막전을 시작으로 초반부터 속도를 내야 하는 만큼 물러설 수 없는 승부가 예고된다.

지난 시즌 광주는 서울 이랜드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 패 없이 2승 2무를 기록하면서 좋은 기억을 남겼다.

하지만 서울 이랜드도 새 시즌을 위해 전력을 보

강주는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나가야 한다.

광주의 승격 도전을 위해 시민들도 함께한다.

광주 구단주인 이용섭 광주시장이 2019시즌권 구매로 팀을 격려했고, 기영욱 단장이 19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 20일 서구(구청장 서대석), 21일 동구(구청장 임택)와 남구(구청장 김병내)를 방문

했으며, 26일에는 북구(구청장 문인)를 방문해 릴레이 면담을 갖고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27일에는 광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황기석)가 구단 연간회원권 51매(350만원 상당)를 구매하며, 광주의 2019시즌 승격을 기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강하면서 달라진 전력으로 광주는 맞는다. 올 시즌 새로 선임된 김현수 감독의 데뷔전이기도 한 만큼



광주시핸드볼협회, 조대여고에 선수 육성 지원금

광주시핸드볼협회(회장 유석우)는 지난 27일 조대여고 체육관에서 협회 임원과 선수 및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경기력 향상을 위한 육성 지원금을 전달했다. <광주시핸드볼협회 제공>